

시나리오 공무원 *SEASON. 1* 모의고사

압도적 * 천재적 * 독보적

들어가며

모의고사의 기본은 단언컨대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란 정답의 근거가 확실하고, 오답의 이유도 명확한 문제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중에는 이러한 기본이 부족한 모의고사도 많습니다. 문제 제작을 외부에 위탁하게 되면 더더욱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연구실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의고사는 다릅니다. 기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지킵니다. 돌이켜 보면 강사로 데뷔한 2008년부터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문제를 만들어 왔기에 누구보다 문제를 잘 만드는 강사라고 자부합니다.

모의고사의 또 다른 기본이라고 한다면 난도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모의고사는 매년 쉽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쳐 보면 우리 연구실 모의고사 난도가 가장 비슷했다고 합니다. 사실 난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뜯어보고, 그와 엇비슷하게 문제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난도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감수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난도가 너무 높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최신 경향에 맞게끔 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그해 기출문제와 유사한 난도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누가 만든 모의고사가 가장 기출과 유사한지, 문제의 형태가 실전과 유사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매년 이런 기본을 지켜왔지만 올해에는 이에 덧붙여 새로운 시도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것은 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습을 한다는 것은 실전을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전을 대비한다는 것은 실전에서 만날 수 있는 변수를 대비한다는 뜻이고요. 실전에서는 문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문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강화·약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과학 지문이 나와 독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개요나 화법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변수를 처음 만난다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하여 회차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의고사를 풀어 보면 실전에서 어떤 변수를 만나더라도 그것은 처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꼭 풀어 보세요. 두 번 풀어 보세요!^^

2025. 10. 31

권규호

개념 출제 목록

문법

음운론

- 음성과 음운 7회, 21회
- 최소 대립쌍 22회
- 된소리되기 16회
- 음절 끝소리 규칙 1회, 20회
- 동화 17회
- 교체, 첨가, 축약, 탈락 10회, 13회

형태론

- 이형태 22회
- 품사 구별 27회
- 의존 명사 28회
- 대명사의 지시 대상 7회, 22회
- ‘우리’의 용법 23회
- 불규칙 활용 26회
- 격조사-보조사-접속조사 26회
- 독립어 18회
- 어근의 품사 파악 24회
- 직접 성분 구별 1회, 10회
- 비통사적 합성어 3회

문장론

- 문장의 종류 4회, 27회, 30회
- 서술어 자릿수 4회
- 명령문-청유문 구별하기 15회, 21회
- 상대 높임법 6회
- 시제 표현 28회
- ‘-겠-’의 용법 2회
- 동작상 구별하기 16회
- 피동문과 사동문 3회, 29회

의미론

- 유의 관계 2회
- 반의 관계 14회, 25회
-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11회, 23회
- 상·하위어 24회
- 의미 변화 20회

표준 발음법

- 제9~11항 받침의 발음 23회
- 제13~15항 겹받침의 발음 5회, 17회

한글 맞춤법

- 제10~12항 두음 법칙 28회

표준어 규정

- 제7항 ‘수-송-숫’ 11회

논리

기본 문제

- 드모르간의 법칙 3회, 28회
- 선언지의 경우의 수 16회, 21회, 24회
- 선언지 제거 4회, 10회, 14회, 24회, 26회
- 배타적 선언 13회
- 조건문으로 전환하기 12회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7회, 12회
- 역, 이, 대우, 결합 법칙, 교환 법칙 1회, 3회, 5회, 6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9회, 21회, 23회, 24회, 25회, 29회
- 술어 논리 1회, 2회, 4회, 17회, 19회
- 생략된 전제 찾기 1회, 2회, 14회, 18회, 28회, 29회

고난도 문제

- 선언지 제거를 심화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5회, 15회
- 모순 12회, 27회, 29회
- 술어 논리와 페이크 6회
- 최대 최소 문제 7회, 14회
- 세 가지 이상의 선언지 제거 25회
- 생략된 전제 찾기-술어 논리와 페이크 8회, 9회, 22회, 23회, 30회
- 생략된 전제 찾기-결합 법칙, 대우 7회, 15회, 20회, 22회, 27회
- 생략된 전제 찾기-선언지 제거와 결합 법칙 4회, 10회, 11회, 25회

이 책의 차례

모의고사 01회	006
모의고사 02회	012
모의고사 03회	018
모의고사 04회	024
모의고사 05회	030
모의고사 06회	036
모의고사 07회	042
모의고사 08회	048
모의고사 09회	054
모의고사 10회	060
모의고사 11회	066
모의고사 12회	072
모의고사 13회	078
모의고사 14회	084
모의고사 15회	090

모의고사 16회	096
모의고사 17회	102
모의고사 18회	108
모의고사 19회	114
모의고사 20회	120
모의고사 21회	126
모의고사 22회	132
모의고사 23회	138
모의고사 24회	144
모의고사 25회	150
모의고사 26회	156
모의고사 27회	162
모의고사 28회	168
모의고사 29회	174
모의고사 30회	180

모의고사

01회

시작 시간	시	분	초
종료 시간	시	분	초
총 소요 시간		분	초

00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음.
-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 ㉢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함.
- 대등한 구조를 보여 주는 표현 사용
 - ㉣ ‘-고’, ‘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 ① “향로는 몸체와 받침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을 금으로 장식되었다.”를 ㉠에 따라 “향로는 몸체와 받침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금으로 장식되었다.”로 수정한다.
- ② “의사는 보호자와 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상의하였다.”를 ㉡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의하였다.”로 수정한다.
- ③ “성실한 나의 동생은 이번 사업에 성공하였다.”를 ㉢에 따라 “나의 성실한 동생은 이번 사업에 성공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기업인의 경영 의욕 고취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를 ㉣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였다.”로 수정한다.

002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의 발음 규칙 가운데 음절 끝소리 규칙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어의 실제 발음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 따라서 종성에 다른 자음이 올 경우 이들 7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로 교체된다. 이를 홑받침 규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꽃’의 받침 ‘ㅈ’은 종성에서 [ㄷ]으로 발음되어 [꼇]이 되고, ‘부엌’의 받침 ‘ㄱ’은 종성에서 [ㄱ]으로 발음되어 [부엌]이 된다.

또한 국어의 음절 끝에는 자음이 최대 1개만 올 수 있다. 따라서 종성에 겹받침이 올 경우 둘 중 하나의 자음은 탈락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된다. 이를 겹받침 규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얹다[안따]’의 경우 받침 ‘ㅅ’ 가운데 ‘ㅈ’이 탈락하여 [ㄴ]만 발음되고, ‘밟다[밥따]’의 경우 받침 ‘ㅍ’ 가운데 ‘ㅍ’이 탈락하여 [ㅂ]만 발음된다. 이처럼 홑받침 규칙과 겹받침 규칙은 모두 음절 끝소리 규칙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다.

- ① ‘옷’의 받침 ‘ㅅ’은 종성에서 [ㅅ]으로 발음되므로 [옷]이 된다.
- ② ‘얹다[음따]’는 홑받침 규칙과 겹받침 규칙이 모두 실현된 것이다.
- ③ ‘땀다’는 음절 종성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지 못하므로 [땀따]가 된다.
- ④ ‘밟다[할따]’는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앞의 자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003

㉠, ㉡에 해당하는 예를 <자료>에서 찾아바르게 묶은 것은?

‘살얼음’은 먼저 ‘살-’과 ‘얼음’로 나누어지고, ‘얼음’은 다시 ‘얼다’의 어간 ‘얼-’과 접사 ‘-음’으로 나누어진다. 즉, ㉠ ‘접사+(어근+접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꿈자리’는 먼저 ‘꿈’과 ‘자리’로 나누어지고, ‘꿈’은 다시 ‘꾸다’의 어간 ‘꾸-’와 ‘-ㅁ’으로 나누어진다. 즉, ㉡ ‘(어근+명사 파생 접사)+어근’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자료 —

헛웃음, 틈틈이, 통조림, 여단이, 비빔밥

- | | |
|-------|-----|
| ㉠ | ㉡ |
| ① 헛웃음 | 비빔밥 |
| ② 통조림 | 틈틈이 |
| ③ 여단이 | 헛웃음 |
| ④ 비빔밥 | 여단이 |

00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는 신분 체제의 동요와 함께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신흥 상공업자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점차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가 점차 해체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려,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섬상좌기(老蟾上座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기존 봉건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 속 백호산군은 힘과 권위에 기반한 봉건적 질서를 상징하며, 이에 맞서는 다양한 동물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흥 세력을 나타낸다. 이들의 대립과 갈등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구시대와 신시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노섬상좌기」는 봉건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닌, 그들의 한계와 문제점 또한 지적한다. 이는 근대 지향적 성격과 더불어 변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반드시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①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백호산군은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무너진다.
- ② 백호산군에 동조하는 신흥 세력은 조선 후기에 부흥한 신흥 상공업자들을 대변한다.
- ③ 조선 후기 신흥 상공업자들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되어 신분 질서를 타파하려 하였다.
- ④ 「노섬상좌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신분 체제의 동요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현한다.

005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캠핑을 즐기는 사람은 모두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외향적인 어떤 사람은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다.

- ① 외향적인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
- ② 캠핑을 즐기는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
- ③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모두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다.
- ④ 외향적이지만 캠핑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

00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불교의 인연설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낸 순수 서정시이다. 이 시에서 모든 현상은 인(因)과 연(緣)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삶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시인은 국화 한 송이의 피어남조차 수많은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고, 자연의 섭리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겸허하게 성찰한다. 반면 나희덕의 「어떤 출토」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적 성찰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은 땅속에 묻힌 유물의 출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내온 기억과 내면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다. 나희덕은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출현을 개인의 내면적 경험과 연결하여, 존재의 의미와 삶의 흔적을 깊이 있게 묻는다.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서정주는 불교 철학에 기반한 인연의 법칙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려 하며, 나희덕은 보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시 모두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명하며 독자에게 깊은 사유와 감동을 전한다.

- ① 「어떤 출토」는 종교에 기반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한다.
- ② 「국화 옆에서」와 달리 「어떤 출토」는 인연의 법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 ③ 「국화 옆에서」와 「어떤 출토」 모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 ④ 「국화 옆에서」와 「어떤 출토」 모두 잊고 지내온 기억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다.

007

(가)~(다)를 맥락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여러 장 찍힌 판화처럼 비슷한 풍경을 지닌 장소들이 있다. 버스 터미널도 그런 곳 중의 하나다. 매표소 창구 사이로 행선지를 묻는 매표원들과 버스를 사려는 사람들로 길게 늘어선 줄들……。 특히 소도시의 터미널은 몇 가지 인상적인 특징이 있다.

(가) 그래서 터미널은 더 이상 종점이 아니다. 전환점이기도 하고 경유지이기도 한 터미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만, 때로는 낡고 불편한 의자에서 삶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나) 그러다 서로의 짐이 우연히 마주 대어 있는 걸 보곤 눈웃음을 나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료함을 달랠 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무언가 기다린다는 공통점만으로도 한잔의 커피를 나누기도 한다. 그 순간 서로 다른 전류가 한곳에 모이는 것과 같은 마음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다)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시멘트 벽,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안내 소리, 벽에 걸려 있는 큰 시계……。 버스 터미널은 크고 작은 집들이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 ① (가) - (다) - (나)
- ② (나) - (가) - (다)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008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요〉

○ 제목: 청소년 참여기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I.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태

1.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율 저조

II.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저조 원인

1. 청소년 참여기구들의 형식적이고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 참여기구에 관한 홍보 부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 부족

3. 청소년 참여기구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미비

III.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성화 방안

- ① 청소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
- ②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채로운 청소년 참여기구 프로그램 마련
- ③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④ 청소년 참여기구 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00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도에서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문화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오랜 농경사회와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현상이다. 고대 인도는 유목에서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소가 농사에 필수적인 노동력과 우유, 비료, 연료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실용적 가치 때문에 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점차 소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 풍습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다. 여기에 불교와 자이나교의 불살생 사상, 그리고 힌두교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소의 신성함은 종교적·문화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인도에서는 소의 분노까지도 연료와 비료로 활용하는 등, 소의 모든 부분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를 먹지 않는 풍습은 상위 계층뿐 아니라 하위 계층에게도 소가 귀중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소 숭배는 _____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역사, 경제,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의 시각에서 단순히 비상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비상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도 사회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신성한 선택
- ② 단순히 신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 산업화 이후 등장한 효율적 경제 현상
- ③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전통이 아니라, 인도 사회 구조와 경제 환경에 뿌리를 둔 합리적 선택
- ④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관습이 아니라,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상의 결과물

[010~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애덤 스미스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질서와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동감(sympathy)’을 제시한다. 동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처지에 자신을 상상적으로 대입하여 행위자와 감정적으로 일치하는 능력이다. 스미스는 이때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관찰자’가 행위자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이 관찰자의 동감 여부가 도덕적 승인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스미스는 동감의 원리가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즉, 한 개인은 이기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자’와,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관찰자 입장에 ㉠두고 반성하는 ‘관찰자’를 내면화하며, 이 관찰자가 동감을 보인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는다. 이와 같은 동감의 범위 내에서 이타적 행위뿐 아니라 이기적 행위도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동감을 얻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혜’,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로 구분한다.

스미스는 자혜와 정의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전자는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이지 않으나 후자는 사회의 기초임을 말한다. 정의가 침해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만, 동감에 기반한 도덕적 규범이 잘 작동하면 사회는 질서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동감 능력은 사회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010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평한 관찰자는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구체적 인물이다.
- ② 자혜는 사회 존속의 필수 조건이며,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
- ③ 동감은 타인의 감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수동적 공감을 의미한다.
- ④ 이기적인 행위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으면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011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 ② 친구에게 받은 연필을 책상 위에 두었다.
- ③ 그는 동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 ④ 큰길을 두고 샛길로 갔다.

012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을 펼친 사람을 모두 고르면?

- 갑: 병원에 입원한 어떤 환자는 허리 디스크에 걸린 환자이다. 허리 디스크에 걸린 환자는 모두 휠체어를 타는 환자이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는 휠체어를 타는 환자이다.
- 을: 이 주무관이 국문과 출신이라면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맞춤법을 잘 지킨다. 이 주무관은 국문과 출신이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 주무관은 맞춤법을 잘 지킨다.
- 병: A학생이 예방 접종을 하면 B학생도 예방 접종을 한다. C학생이 예방 접종을 하면 B학생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A학생이 예방 접종을 하면 C학생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다.

- ① 갑
- ② 병
- ③ 갑, 을
- ④ 을, 병

013

다음 글의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 런) 등으로 인해 은행의 자금이 급격히 부족해질 경우, ㉠은행은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경우 은행은 국공채 등 우량 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중앙은행은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의 가치를 심사한 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아 은행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은 ㉢은행이 결제를 제때 처리하고, 예금 인출이나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은행이 신규 대출을 하고 싶지만 여유 자금이 부족하거나, 안전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 ㉣중앙은행은 대출을 통해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① ㉠: 사람들은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 ② ㉡: 일반적으로 매우 낮아 은행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③ ㉢: 은행이 결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 ④ ㉣: 은행은 대출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다음 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96년 영국에서 복제 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 인간 복제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 복제 기술은 생명과 학의 눈부신 발전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과 윤리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인간 복제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을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복제를 통해 원하는 대로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장기 이식 등 의학적 목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신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윤리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인간 복제가 난치병 치료와 장기 부족 문제 해결 등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복제 기술을 통해 현재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극복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며 연구를 장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인간 복제에 대한 논쟁은 생명 윤리와 과학 발전, 사회적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 복제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① 동물 복제 연구에서 이미 질병 모델 동물을 만들어 신약 개발과 생명 연장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견해는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한다.
- ② 동물 복제 실험에서 기형, 유산, 조기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성공률이 극히 낮다는 견해는 찬성 측 주장을 약화한다.
- ③ 대량 복제가 이루어질 경우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해 인류 전체의 건강과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반대 측 주장을 강화한다.
- ④ 복제 기술이 난치병 치료에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던 실제 사례는 반대 측 주장을 약화한다.

[015~0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더는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선장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 리더 역시 구성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을 이끄는 데 필요한 능력과 덕목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리더는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현대 사회의 조직은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작은 틈만 생겨도 쉽게 흩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어도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한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기 다른 악기 소리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조직 전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리더는 ㉣넓은 바다를 품은 항구처럼 포용력과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넓은 귀를 가진다”라는 표현처럼, 리더는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잘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과 덕목은 단지 조직의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인재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결국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 포용하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으며, 서로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길잡이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0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더는 미래 인재의 경쟁력과 조직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② 리더는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④ 구성원 각각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리더는 조직 전체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016

㉠~㉤ 중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0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니,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하지만 이런 자유로 인해 책임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 익명 뒤에 숨어 무책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

을: 나는 익명성이 오히려 온라인 집단행동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강화한다고 봐. 책임감이 떨어지고, 무례한 댓글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공격적 행동이 늘어나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키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실명제 도입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야.

병: 그렇지만 실명제에 무조건 찬성할 수만은 없어. 너희가 말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자기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익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검열이 심해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있어. 때로는 공익 제보자나 약자가 보호받기 위해 익명성이 꼭 필요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균형 잡힌 대응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갑: 맞아. 익명성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야 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익명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해.

- ①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 확대와 부작용을 함께 가지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한다.
- ② 온라인 집단행동에서 익명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을과 병은 동의한다.
- ③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책임감이 감소하는 점에 대해 갑과 을은 동의하지만 병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실명제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018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평일이라면 조기 축구 모임이 없다.
-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면 폭설이 내린 날이 아니다.
- 이 주무관이 재택근무를 한다면 폭설이 내린 날이다.

- ①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면 이 주무관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
- ②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면 이 주무관은 재택근무를 한다.
- ③ 이 주무관이 재택근무를 한다면 평일이다.
- ④ 평일이라면 폭설이 내린 날이다.

[019~0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도르노는 20세기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논리에 포획되어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문화가 이윤 추구를 위해 표준화된 상품으로 대량 생산되는 현상을 ‘문화산업’이라 ㉠명명했다. 이는 인간의 창조적 가치를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동일성의 원리’를 강화한다고 경고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개체를 추상적 교환 가치로 ㉡환원하는 지배 원리다. 이에 따라 예술 작품은 고유한 사용 가치가 아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하며, 개인마저 체계의 기능적 부품으로 동일화된다.

문화산업의 핵심 메커니즘은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이다. 표준화는 성공한 작품의 형식을 무한히 복제하는 대량 생산 체제의 본질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 인기 음악은 청중의 익숙한 청각 패턴에 맞춰 표준화된 구성 원칙을 따르며, 성공 작품은 수많은 모방을 낳는다. 그러나 표준화만으로는 지속적 소비를 보장할 수 없기에 ‘사이비 개성화’가 동원된다. 이는 진정한 개성이 아닌, 소비를 유발하기 위한 차별성의 환영을 ㉢창출하는 장치다. 신제품이 새로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표준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용자를 정신적 불구 상태로 만든다. 표준화된 문화 상품은 반복 노출을 통해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수동적 수용을 강화한다. 대중은 비판적 사유 없이 문화 산물을 소비하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반성적 태도가 위축된다. 아도르노는 이를 ‘사유 능력의 불구화’라 규정하며, 문화산업이 인간을 미성숙하게 하고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019

윗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수의 대중문화 작품이 환경과 인권, 평등과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아도르노의 주장을 강화한다.
- ② 대중문화가 인간의 욕구를 조작하고, 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아도르노의 주장을 약화한다.
- ③ 웹툰 플랫폼에서 다양한 작가가 각기 다른 스타일과 주제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은 아도르노의 주장을 강화한다.
- ④ 문화산업의 메시지를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보는 견해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약화한다.

020

㉠~㉣과 바뀔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믿었다
- ② ㉡: 되돌리는
- ③ ㉢: 만들어 내는
- ④ ㉣: 망가뜨린다고

모의고사

02회

시작 시간	시	분	초
종료 시간	시	분	초
총 소요 시간		분	초

00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간결한 표현 사용
 - ㉠수식어가 연속되는 복잡한 표현을 삼가야 함.
- 우리 식의 표현 사용
 - ㉡생소한 외래어나 외국어는 우리 식의 표현으로 다듬기.
- 조사와 어미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
 - ㉢지나친 명사 나열을 피하고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함.
- 대등한 구조를 보여 주는 표현 사용
 - ㉣“-고”, “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 ①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을 ㉠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정한다.
- ② “어카운트 생성 후 액세스 가능합니다.”를 ㉡에 따라 “계정을 만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한다.
- ③ “신청 서류 제출 마감 안내”를 ㉢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제출 마감일을 안내합니다.”로 수정한다.
- ④ “공공 화장실의 청결과 기물 파손을 막아야 합니다.”를 ㉣에 따라 “공공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기물 파손을 막아야 합니다.”로 수정한다.

002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겠-’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의미도 담아낸다. 예를 들어 ‘곧 비가 오겠구나’라는 문장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추측’하는 뜻이고, ‘저는 꼭 목표를 이루겠습니다’라는 말은 주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처럼 ‘-겠-’은 미래 시점 그 자체보다는 화자의 태도와 관점이 드러나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겠-’은 이전의 일 또는 현재 상황을 추정할 때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많이 피곤했겠지’, ‘이 시간에 도착했겠네요’ 등의 문장은 과거나 현재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쓰인다. 미래를 나타내는 기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쓰임도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제 미래 사건을 평온하게 말할 때는 선어말 어미 ‘-ㄴ-’ 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여행을 간다’, ‘내일 발표가 있을 것이다’에서 사용된 ‘-ㄴ-’이나 ‘-(으)ㄴ’이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로 기능하기도 한다.

- ① ‘내일 눈이 내리겠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 ② ‘봄날이 가면서 꽃잎이 떨어진다’에서 ‘-ㄴ-’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이다.
- ③ ‘지금은 그곳에도 바람이 많이 불겠다’에서 ‘-겠-’은 미래 추측의 의미가 아니다.
- ④ ‘이 일은 반드시 끝마치겠습니다’에서 ‘-겠-’은 화자의 태도와 관점을 드러낸다.

003

다음 중 의미 관계가 다른 하나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가 있다. 유의 관계란 단어들이 서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예컨대 ‘책방-서점’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반의 관계는 단어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을 흔히 반의어라고 한다. 예컨대 ‘남자-여자’와 같은 단어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하 관계는 두 개의 단어 중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될 때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한다. 예컨대 ‘꽃’은 ‘무궁화’의 상의어가 되고, ‘무궁화’는 ‘꽃’의 하의어가 된다.

- ① 남자-아들
- ② 뛰다-달리다
- ③ 모름지기-마땅히
- ④ 숨지다-사망하다

00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소설 「토끼전」은 수궁계와 지상계라는 뚜렷하게 대립되는 두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 두 공간은 각각 바닷속 용궁과 땅 위의 세계를 의미하며, 인물들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단순한 배경 변화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욕망과 생존 전략, 그리고 극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작품에서 토끼는 지상계에서의 평범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용궁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는 기존 공간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토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 위기로부터 탈출한다. 반면 용왕이나 자라와 같이 수궁계에 고착화된 인물들은 공간 이동의 유연함을 갖추지 못해 결국 패배하게 된다. 이처럼 공간 이동의 가능성은 곧 인물의 생존과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즉 공간의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물의 욕망 실현과 위기 극복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공간에 고착된 인물과 이동할 수 있는 인물의 대립 구도를 통해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① 「토끼전」에서 지상계와 수궁계의 대립은 평범과 비범의 대립 양상과 연결된다.
- ② 「토끼전」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③ 「토끼전」에서 두 공간의 이동은 인물의 생존 전략과 위기 극복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④ 「토끼전」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등장인물의 욕망, 위기, 그리고 극복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005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최신 정보에 민감한 사람은 모두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어떤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어떤 사람은 최신 정보에 민감하다.

- ① 최신 정보에 민감한 어떤 사람은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
- ②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최신 정보에 민감하다.
- ③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지 않은 사람은 모두 최신 정보에 민감하지 않다.
- ④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어떤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00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수영의 「파발가에서」와 고은의 「눈길」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시적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두 시 모두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뇌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두 시인은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허무와 방황,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내면의 번민을 시적 언어로 풀어낸다.

「파발가에서」에서 김수영은 일상적인 자연 풍경, 즉 파발의 소박함을 통해 삶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 의미를 성찰한다. 그는 현실의 고단함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파발의 푸르름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시인이 느끼는 희망과 생명력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그 희망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흔들리기도 하며, 시인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반면 고은의 「눈길」은 삶의 허무와 방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시인이 겪는 내면의 번민과 구도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그린다. 고은은 외부 세계의 문제나 불안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방황과 번민을 거쳐 자기 성찰과 깨달음에 이르는 시인의 구도 여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이 시에서 눈길이라는 소재는 차가운 현실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상징한다.

- ① 「눈길」은 「파발가에서」와 달리 자연과 자아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 ② 「파발가에서」는 「눈길」과 달리 현실에서 느낀 고통과 허무함을 자기 내면을 향한 성찰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 ③ 「파발가에서」의 화자는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눈길」의 화자는 내면의 번민과 깨달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모색한다.
- ④ 「파발가에서」와 「눈길」 모두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의 색채를 통해 희망과 생명력을 드러낸다.

007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특히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는 시민 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국민은 시민 단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자들을 감시하며,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야만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 (나)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제도와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 발의, 투표,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은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 (다) 한편 대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집단 시위, 서명 운동, 공청회 등은 대표자들의 행동을 점검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라) 더불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다.

- ① (나) - (다) - (가) - (라)
 ② (나) - (라) - (다) - (가)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라) - (가) - (나)

008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요>

○ 제목: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실태

－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아 처리가 어려움

II.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1) 정책적 문제점

1. 소각과 매립 위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
2. 명확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

(2) 환경적 문제점

1. 소각 방식은 대기를 오염시킴
2. 매립 방식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비위생적임

III.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개선 방안

- ① 무분별한 음식물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②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 마련
 ③ 명확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 확립
 ④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개발

009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대형 마트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대형 마트가 매달 두 차례 휴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시행 결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전통 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부 조사에서는 대형 마트뿐 아니라 전통 시장 매출도 10~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약 70%가 대형 마트 휴무일에 쇼핑을 아예 포기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전체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나 일부 기관에서는 대형 마트 휴무일에 전통 시장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고 발표하지만, 그 증가분은 대형 마트 매출 감소분의 20%에 불과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거나,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①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②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후 전통 시장의 매출 감소가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③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 시행 후 전통 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④ 대형 마트 휴무일에 증가한 전통 시장 매출에 대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010~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경기 변동이 반드시 나타나며, 이는 실질 GDP가 장기 추세선에서 단기적으로 이탈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경기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시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 등 총수요 측면의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신의 상품 가격 상승을 전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요 증가로 오해해 생산을 늘릴 수 있고, 이후 오류를 깨닫고 생산을 줄이면서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만으로 대규모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혁신이나 유가 상승 등 실물적 요인,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 부문의 영향도 경기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처럼 경기 변동의 원인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경제 환경과 시대에 따라 그 해석과 대응도 달라진다.

010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변동은 한 국가 내에서만 발생하며,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는 드물다.
- ②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경기 변동은 완전히 사라진다.
- ③ 경기 변동은 실질 GDP가 단기 추세선에서 이탈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 ④ 합리적 기대를 가진 경제 주체는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011

㉠~㉣과 바깥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뜻한다
- ② ㉡: 바뀌어
- ③ ㉢: 찾아진다
- ④ ㉣: 퍼뜨려지는

012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모두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나)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중 일부는 공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

- ①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 ②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모두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 ③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 ④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중 일부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013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비타민 보충제를 자주 찾는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별도의 비타민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일상적인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햇볕을 통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 특히 겨울철이나 흐린 날씨가 많은 시기, 또는 실내 생활이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다.

비타민 C 역시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찾는다. 그런데 ㉢감기 예방이나 증상 완화에 비타민 C가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타민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속쓰림, 설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비타민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
- ② ㉡: 뼈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므로
- ③ ㉢: 감기 예방이나 증상 완화에 비타민 C가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 ④ ㉣: 특히 자신의 몸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한 용량을 복용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글의 미래주의를 약화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9년 이탈리아에서 시인 마리네티가 발표한 「미래주의 선언」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미래주의는 전통 예술의 권위를 철저히 부정했다. “니케의 여신상보다 달리는 기차가 더 아름답다”라는 선언에서 드러나듯, 속도·기계·현대 문명을 찬미하며 대중 예술과 영화 같은 신매체를 적극 옹호했다. 르네상스 전통에 갇힌 당시 이탈리아 미술계에 반기를 든 이 운동은 보초니, 카라, 세베리니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박물관 예술 대신 일상의 생동감을 예술의 본질로 삼았다.

미래주의는 전통적 서구 문명을 거부한 점에서 다다이즘과 구축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무솔리니 파시즘과의 연계, 전쟁 참여, 무정부주의 성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저평가되었다. 특히 보초니는 조각에 ‘움직임’을 구현하려 시도했는데, 그의 작품 〈공간에서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는 정적 조각에 속도감을 담아내려는 혁신적 실험이었다. 발라의 〈줄을 단 개의 역동성〉 역시 평면에서 역동성을 표현한 대표적 성과로, 이들의 실험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선보였다.

비록 정치적 문제로 외면받았지만, 미래주의는 예술의 경계를 혁명적으로 확장했다. 보초니가 “누드 조각은 죽은 예술”이라 선언하며 전통 인체 표현을 거부한 것처럼, 예술과 일상·기술·디자인의 융합을 시도한 점에서 근대 미술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미래주의는 과거의 틀을 깨고 현대 문명을 예술로 끌어들이는 선구적 운동으로 재평가되며, 그 혁신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된 예술은 생동감이 죽어 있는 박제화된 지식에 불과하다.
- ② 기차, 자동차, 도시 군중에서 느껴지는 속도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담아내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다.
- ③ 진정한 예술이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동감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예술가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대 문명의 산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015~0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회피형 전략과 경쟁적 전략이 있다. 회피형 전략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유머로 상황을 넘기는 경우처럼 갈등 상황에서 상대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전략에는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고, 갈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회피형 전략은 일시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심사숙고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 통제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경쟁적 전략은 갈등을 전쟁이나 투쟁으로 간주하며,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전략은 공격적인 언어 사용, 상대방에 대한 위협, 물리적 폭력까지 포함하며, 회피형 전략에 비해 확실히 적극적이지만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친구처럼 단절이 가능한 관계에서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고, 부모와 자식처럼 단절이 어려운 관계에서는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 하지만 선의의 목적이 명확히 전달된다면 경쟁적 전략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효과는 떨어진다.

갈등 해결 전략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회피형 전략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소원화를 불러올 수 있고, 경쟁적 전략은 빠른 해결을 가져올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015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쟁적 전략은 회피형 전략에 비해 훨씬 소극적인 전략이다.
- ② 회피형 전략과 달리 경쟁적 전략은 신체적인 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 ③ 단절이 어려운 관계일 경우 경쟁적 전략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없다.
- ④ 경쟁적 전략과 달리 회피형 전략은 자주 사용하면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016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가 잘 알아듣도록 일러 주었다.
- ② 이것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이른다.
- ③ 자정에 이르러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 ④ 그의 음악성이 완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0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갑:** 고전음악은 구조가 엄격하고 반복적인 형식 위주야. 선율과 조성이 명확해서 청중이 음악의 전개를 쉽게 예측할 수 있지. 감정 표현도 절제된 편이어서 고요하고 균형 잡힌 미를 느끼게 해. 반면 현대음악은 너무 난해하고 무절제해서 별로야.
- 을:** 난 다르게 봐. 현대음악은 고전음악과 달리 감정을 훨씬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해. 전통적인 조성이나 리듬을 넘어서 새로운 소리와 기법을 시도해서 청중에게 낯설고 신선한 경험을 주지. 그래서 청중의 반응도 다양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편이야.
- 병:** 맞아, 양쪽 모두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고전음악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과 형식을 통해 창작 동기의 깊이와 정성을 보여주고, 현대음악은 사회 변화와 개인의 내면을 반영하는 창작 동기를 대표하지. 엄격함과 절제미를 갖춘 고전음악도 매력적이고,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듣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음악도 좋아. 그래서 나는 고전과 현대음악의 차이를 단순 대립으로 보지 않고, 시대적 맥락에서 서로 보완한다고 생각해.
- 갑:** 고전음악은 청중들이 감정을 차분히 음미하며 음악을 감상하는 데 적합해. 반면, 현대음악은 때로 불협화음으로 충격을 주는 등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만 남기려 하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고전음악이 훨씬 뛰어나.
- 을:** 오히려 바로 그 점이 현대음악의 강점이야. 구조적으로 너무 엄격하고 정형화되지만 한 고전음악은 우리에게 조용히 감상하기만을 원하는 듯해. 그런 고전음악의 틀을 깨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음악적 창의성이 현대음악을 계속 발전시키는 동력이야.

- ① 고전음악이 청중에게 차분한 감상을 유도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을은 동의한다.
- ② 현대음악은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청중 반응도 다양하다는 점에 대해 을과 병은 동의한다.
- ③ 고전음악은 구조의 엄격성을 중시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④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작 동기가 서로 다르지만 시대 맥락에서 보완적이라는 점에 대해 병은 동의한다.

018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갑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을도 지원하지 않는다.
- 갑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병도 지원하지 않는다.
- 정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한다면, 병도 지원한다.

- ① 갑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한다면, 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 ② 을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한다면, 병도 지원한다.
- ③ 을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정은 지원한다.
- ④ 정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한다면, 갑도 지원한다.

[019~0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사상의 출발점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한 본격적 탐구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소피스트들은 감각적 경험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제시했다.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말처럼, 소피스트들은 진리와 가치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으며, 보편적 윤리나 객관적 진리를 부정했다. 이들은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소피스트의 사상에 반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 진리와 윤리적 삶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는 세속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와 참된 지식을 중시했으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자아 성찰과 무지의 자각, 진리 추구를 역설했다. 그는 얌이 곧 선(善)이며, 참된 지식은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감각적 세계를 넘어선 이성적 세계, 즉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만이 진정한 실재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욕망, 기개, 이성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조화를 통해 정의와 행복이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은 철인이 통치하는 이상 국가를 이상으로 ㉠살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변화와 발전 속에서 완성되는 우시아(존재)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최고선의 실현과 행복 추구로 보았으며, 덕은 실천과 노력을 통해 쌓아간다고 보았다.

019

윗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행위가 선악으로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면 소피스트들의 주장은 강화된다.
- ②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다면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③ 세상에는 수학적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다면 플라톤의 주장은 강화된다.
- ④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약화된다.

020

윗글의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아 짚신을 삼았다.
- ② 그녀는 딸을 친구 삼아 이야기하곤 했다.
- ③ 그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 ④ 그분은 친한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다.

모의고사

03회

시작 시간	시	분	초
종료 시간	시	분	초
총 소요 시간		분	초

001

다음 글의 ㉠~㉣을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고문>

20〇〇년도 동계 한자문화캠프 참가자 선착순 ㉠모집 공고

〇〇시에서 한자 교육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 생활을 익힘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20〇〇년도 동계 한자문화캠프’에 참가할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1. 참가자 모집

- 모집 기간: 20〇〇. 12. 13.(월)~12. 15.(수)
- 모집 인원: 50명(선착순 모집)
- 신청 방법: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반드시 참가 학생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함.

<지침>

- 제목을 불필요한 표현 없이 간결하게 쓴다.
-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 참가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용어를 선택한다.
- 고압적 표현을 삼간다.

- ① ㉠을 ‘모집’으로 수정한다.
- ② ㉡을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와 공동체 생활의 익힘으로써’로 수정한다.
- ③ ㉢을 ‘방문 제출’로 수정한다.
- ④ ㉣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한다.

002

<보기>와 같은 글의 개요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제목: ㉠

Ⅰ. 서론: 신용카드 사용 인구의 증가

- 신용카드 사용 인구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 인용

Ⅱ. 본론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 가. 개인적 측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함
 - 나. 사회적 측면: 신용 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함
2. 부작용의 원인
 - 가. 개인적 측면: 신용 카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함
 - 나. 사회적 측면: 카드 회사들이 신용 카드를 남발함
3. 해결 방안
 - 가. 개인적 측면: 능력을 고려하여 신용 카드를 사용함
 - 나. 사회적 측면: 정부 차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함

Ⅲ. 결론: ㉡

- ① ㉠: 신용카드의 양면성
 - ㉡: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해야 함
- ② ㉠: 알뜰하게 신용 카드 쓰는 법
 - ㉡: 법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③ ㉠: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
 - ㉡: 개인과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④ ㉠: 신용 카드가 나아갈 바람직한 길
 - ㉡: 신용 카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003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파생어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지는 단어이다. 파생 접사는 어근에 붙어 뜻을 한정하기도 하고, 품사나 문장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과일 냄새가 향기롭다’에서 ‘-롭-’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이다. 그러나 ‘맨발로 나왔다’에서 ‘맨-’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낮다’는 본래 ‘답이 낮다’처럼 주동문으로 쓰인다. 그런데 ‘그는 답을 낮추었다’에서 ‘-추-’는 어근의 품사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까지 사동문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접사가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까지 달라진 파생어에는 가 있다.

- ① 높다
- ② 막히다
- ③ 공부하다
- ④ 슬기롭다

00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찾으려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 심리학에서 ‘귀인’이라 부르는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귀인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시험을 잘 본 학생의 원인을 그의 꾸준한 노력과 지능에서 찾는 것처럼, 내부 귀인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사람 자체의 성격, 능력, 노력과 같은 내적인 특성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부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주변 환경, 운, 상황과 같은 외부 요인에서 찾는다. 같은 시험 결과를 놓고, 시험이 쉬웠거나 시험장에서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 사람들은 내적, 외적 원인을 기준으로 행동을 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대와 감정, 편견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실패를 그 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근본적 귀인 오류’나, 자신에게는 외부 요인을, 타인에게는 내부 요인을 더 강조하는 ‘행위자-관찰자 편향’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귀인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귀인의 방식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행동과 동기를 해석하는 데 활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① ‘근본적 귀인 오류’는 실패를 오직 개인 탓으로 돌리는 인지적 편향이다.
- ② 귀인은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③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자신은 외부 요인을, 타인은 내적 원인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 ④ 환경과 상황 중 어느 부분에 원인을 두는지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나눌 수 있다.

00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지식인’이라는 개념을 집단적으로 형성하고 주도한 나라는 프랑스다. 이 용어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19세기 말 일어난 ‘드레퓔스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 사건은 1894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태계 군인 드레퓔스 대위는 독일에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드레퓔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관계자가 좌천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다.

이때 유명한 작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드레퓔스의 재심과 석방을 촉구했다. 이후 문학자, 예술가,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지식인’이라 자처하며 드레퓔스 사건에 목소리를 냈다. 이로써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결국 드레퓔스 사건은 지식인이 단순한 학문적 활동을 넘어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존재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프랑스는 근대 지식인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으며, 학문과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 ① 보편적 가치와 인권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 ② 형사 사건 판결에 의문을 품고 강력하게 투쟁하고 저항하는
- ③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집단을 조직하는
- ④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질 오염 방지, 중수도 시설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국민이 물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나)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은 인구 증가와 경제 활동의 확대, 그리고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먹는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경고하며, 매년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지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 (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주요 원인으로는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다는 점과, 강우량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후 특성이 있다. 그런데 물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그로 인해 1~2년 내에 연간 20억 톤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자연 연구소의 국가별 물 부족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재생 가능 수자원은 북한이나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물이 적은 국가는 파키스탄뿐이다.

- ① (나) - (다) - (가) - (라)
 ② (나) - (라) - (다) - (가)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라) - (가) - (나)

[007~0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르크스는 19세기 유럽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분석한 사상가로, 자본주의의 내적 결함이 결국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전의 공산주의가 단순한 이상적 제안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확립했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발전이 물질적 조건의 변화,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적 유물론’을 주장했다. 그의 대표 저작 『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가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강한 자본가만이 살아남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의 결과,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도태되고, 남은 기업마저도 소비자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기업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다수의 노동자는 빈곤에 시달리고, 소수의 자본가만이 부를 독점하게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평등한 공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며, 마르크스가 예언한 폭력 혁명은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 그리고 공동선의 실현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은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백신’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00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동에 의해 역사가 발전된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자기 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 문제는 구조적 원인과 관련이 깊다.
 ④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내적 결함으로 인해 노동 혁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008

㉠~㉣과 바뀔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신랄(辛辣)하게
 ② ㉡: 달성(達成)된다는
 ③ ㉢: 직면(直面)하게
 ④ ㉣: 기립(起立)하지

[009~0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하에 석유가 존재하는 위치인 유전과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석유 탐사가 이루어진다. 주요 석유 탐사 유형에는 ‘지질 탐사’, ‘지구물리 탐사’, ‘시추 탐사’ 등이 존재한다.

먼저, ‘지질 탐사’는 전체 ㉠지표의 암석 분포와 구조, 지형 등을 조사하여 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초기 탐사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지질 탐사는 다시 ‘지질 조사’와 ‘지구화학 조사’로 나뉘는데, 지질 조사는 암석의 유형과 배열 상태를 분석하여 ㉡유전이 예상되는 구조를 찾아내는 조사 방법이다. 반면, 지구화학 조사는 토양, 암석, 물에서 탄화수소의 흔적을 탐지하여 목표 대상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지구물리 탐사’는 지하의 구조를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탄성과 탐사’와 ‘중력·자력 탐사’가 있는데, 탄성과 탐사는 인공적으로 지표에 충격파를 발생시켜 그 반사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층의 전체적인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방식은 깊은 곳에 위치한 유전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중력·자력 탐사는 지하 밀도와 자기장 변화를 측정해 ㉣대상의 매장 가능 구조를 찾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추 탐사’는 실제로 땅을 파서 석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탐사 시추’와 ‘평가 시추’로 나뉜다. 탐사 시추는 매장 후보 지역에 시추정을 직접 박아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하는 초기 단계의 탐사 방식이다. 이에 비해 평가 시추는 생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밀하게 실시한다. 시추 탐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00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질 탐사와 탐사 시추는 주로 석유 탐사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된다.
- ② 중력·자력 탐사는 지하 밀도와 자기장 변화를 측정하는 시추 탐사 방식이다.
- ③ 탄성과 탐사는 지표에 자연 충격파를 가해 반사파를 분석하여 석유의 존재를 탐사한다.
- ④ 지질 조사와 지구화학 조사는 탄화수소의 흔적을 탐지함으로써 석유 존재 가능성을 판단한다.

010

윗글의 ㉠~㉣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01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석의 「고향」과 허세옥의 「움직이는 고향」은 고향이라는 공간이 인간의 삶과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두 시 모두 고향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자아의 근원과 실존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백석의 「고향」에서는 고향이 일상적 삶의 원형이자, 변하지 않는 자아의 중심으로 그려진다. 시인은 고향을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상실과 결핍을 해소해 주는 근원적 장소라고 강조한다. 고향은 시인에게 존재의 뿌리이자,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진정한 거주지로 자리매김한다. 이처럼 백석의 고향은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친밀하고 안정된 공간, 즉 (가)실존의 안식처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반면 허세옥의 「움직이는 고향」은 전통적 고향의 개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와 삶의 환경 속에서 고향의 의미가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수필에서 필자는 자신의 근원인 어머니가 고향에서 이성한 뒤, 이제 ㉠고향은 ㉡이전 고향의 느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는 타지를 떠돌면서 익숙한 향취와 인연이 자리했던 고향으로 가 보지만 ㉢그곳에는 메주 냄새 밴 어머니의 빈방은 사라지고 서늘한 불안감만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작가에게 이제 ㉣고향은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동과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장소가 되었다. 즉 고향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자 출발점이었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실존의 공간이 된다.

0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향」은 전통적 고향의 개념에서 벗어나 고향의 유동성과 재창조 가능성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 ② 「움직이는 고향」은 고향을 모성과 연결된 따뜻하고 안온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고향의 불변성과 원형성에 집중한다.
- ③ 「고향」과 「움직이는 고향」 모두 고향이 현재의 삶과 경험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④ 「고향」과 「움직이는 고향」 모두 고향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고향과 존재와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012

윗글의 ㉠~㉣ 중 문맥상 (가)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013

㉠,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단어이다. 합성어는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이나 품사의 결합 방식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나는 오늘 뽕밥을 먹고 싶다’에서처럼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채 결합한 것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행동은 하지 마라’에서처럼 ㉡각 단어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것,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려 시원하다’에서처럼 부사어와 체언이 결합한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 샘솟는 열정은 젊음이 지닐 수 있는 특권이다.
- ② ㉠: 나의 첫사랑은 그렇게 어이없이 끝나고 말았다.
- ③ ㉡: 타고난 재능을 살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것이다.
- ④ ㉡: 그의 이마에 흐르는 검붉은 피에서 비장함이 느껴졌다.

0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은 약 380~800나노미터의 파장 범위에 해당한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파장이 짧은 보라색에서부터 긴 빨간색까지 일곱 가지 색으로 분리된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가시광선 전체에서 색 변화를 동일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파란색과 초록색, 노란색과 주황색의 경계 근처에서는 극히 미세한 파장 차이도 색 차이로 감지할 수 있지만, 보라색이나 빨간색의 양쪽 끝에서는 두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론적으로는 수백 가지 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200~250가지 단색광만 구분해 낼 수 있다.

색의 구분에는 색상, 명도, 채도 등 세 가지 속성이 영향을 미친다. 똑같이 보이는 두 색도 세 속성 중 하나가 다르면 구분이 가능하다. 색을 감지하는 망막에는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다. 이 세포들은 각각 빨강, 초록, 파랑 계열의 빛에만 반응하며, 이들의 반응을 종합하여 뇌에 신호가 전달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원뿔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특정 색 구분이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적추체나 녹추체에 이상이 있으면 적녹색을 식별하는 시각에 이상이 나타나며, 세포 두 종류가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색의 밝기만 느낄 수 있는 색맹이 될 수 있다. 이런 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시각 이상은 성별, 인종,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 ① 빛의 파장이 아주 길거나 아주 짧은 경우 색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 ② 녹색과 빨강 계열의 색을 구별하는 데에는 별도의 세포들이 관여한다.
- ③ 파장 차이에 따른 색 구별이 전혀 안 된다면 색의 밝기 구별 역시 불가능하다.
- ④ 특정 색을 정확히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원뿔세포 기능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

015

(가)~(라)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김 주무관과 이 주무관 둘 모두가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지는 못한다.
(나) 김 주무관, 박 주무관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다) 최 주무관이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면, 김 주무관도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라) 이 주무관이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다면, 김 주무관도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따라서 .

- ① 이 주무관은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 ② 박 주무관은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 ③ 네 명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 ④ 김 주무관과 최 주무관 모두 학사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016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산불진화 드론 개발이 추진되는 동시에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을: 한편 조류대응 드론 개발이 추진된다면,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하는 사업자가 선정돼요.
병: 산불진화 드론 개발이 추진되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정: 반면 조류대응 드론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요.
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

- ① 산불진화 드론 개발이 추진된다면, 조류대응 드론 개발도 추진되겠군요
- ②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면, 산불진화 드론 개발이 추진되겠군요
- ③ 조류대응 드론 개발이 추진되는 동시에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 ④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서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017~0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전자 결정론은 인간의 행동과 능력, 성격이 모두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이론의 오용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많은 불행과 차별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일은 유전자 결정론이 얼마나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로 인해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유전자만으로 인간의 모든 특성이 결정된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 잃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을 실어준 것은 유전자 연구의 진전이였다. 리처드 르윈틴과 같은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단백질의 청사진 역할을 할 뿐이며, 실제로는 세포 내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 작용해야만 그 역할이 ㉡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유전자를 ‘마스터 분자’로 여기며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오류임을 강조하였고, 이로써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반대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다.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 “유전자 결정론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말하며, 단순한 신체적 특성조차 여러 유전자의 영향 아래 있으며, 심지어 유전병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일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특성이 좌우되기는 ㉢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 최근 연구 결과는 유전자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이러한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새로운 발현 과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 행동에 미치는 유전자의 영향은 일부에 불과하며, 환경 등 다양한 요인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 최근 연구를 통해 명확히 ㉣ 드러난 것이다.

017

윗글의 (가)를 강화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사과와 오렌지의 유전자를 조합하여 두 가지 과일 맛이 나는 새로운 과일을 만들었다.
- 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복제 동물들이 태어난 후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서로 전혀 다른 신체적 특성이 발현되었다.
- ㄷ.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이 산업 지대에 거주하며 공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유전병인 천식의 유병률이 높아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018

㉠~㉣과 바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실(喪失)하게
② ㉡: 발현(發現)될
③ ㉢: 난해(難解)하다고
④ ㉣: 구명(究明)된

019

다음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갑: 최근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서로 대화보다는 상대방을 배척하는 태도가 늘어나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 전체의 분열과 불신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죠.
- 을: 저는 시민 사회가 열린 토론과 참여 확대를 통해 그런 갈등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는 지역 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의 장을 넓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 갑: 하지만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장인 인터넷과 SNS에서는 더 극단적이고 편향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 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점도 큰 문제고요.
- 을: 그런 문제는 정보 활용 능력 교육과 소통 플랫폼 구축 같은 노력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교육과 환경 조성이 민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 ㄱ.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이 심화되어 시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입장을 강화한다.
- ㄴ. 유럽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가 주민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갈등을 줄인 사례는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 ㄷ. 공공 토론회에서 소수 의견이 묵살되고 다수의 강한 주장만 강조되어 일부 집단의 불만·갈등이 심화된 사례는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020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A가 김포 센터와 천안 센터에 모두 방문한다면, B는 군산 센터에 방문한다.
- C가 울산 센터에 방문한다면, A는 김포 센터와 천안 센터에 모두 방문한다.
- C나 D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울산 센터에 방문한다.
- B는 군산 센터에 방문하지 않는다.

- ① A는 김포 센터와 천안 센터에 모두 방문한다.
② B는 군산 센터에 방문한다.
③ C는 울산 센터에 방문한다.
④ D는 울산 센터에 방문한다.

시나리오 공무원 *SEASON. 1* 모의고사

압도적 * 천재적 * 독보적

정답과 해설

모의고사 01회

001 ④	002 ②	003 ①	004 ④	005 ③
006 ③	007 ④	008 ①	009 ③	010 ④
011 ①	012 ②	013 ②	014 ④	015 ④
016 ③	017 ③	018 ①	019 ④	020 ①

S#1 25 지방직처럼 나온다면...

- 1) 킬러1 공문서 수정하기 [1번]
- 2) 킬러2 빈칸 추론하기 [9번]
- 3) 킬러3 논리 [12번]

이번 회차는 지문의 글자 수 7120자, 평균 정답률 85%로 <25 지방직 9급>과 유사한 길이 및 난도로 출제하였다. 킬러 문제는 공문서 수정하기, 빈칸 추론하기, 논리로 배치하였다. 공문서 수정하기의 경우, 등위 접속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빈칸 추론하기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오답을 내용 일치 관점에서 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논리는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생소한 유형으로 출제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적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있다.

001

정답 | ④

해설 | ‘기업인의 경영 의욕 고취’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는 대등한 구조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였다’ 역시 대등한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에 따라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파하기 |

- ① 피동 표현 ‘장식되다’의 적절한 주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에 따라 “향로는 몸체와 받침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금으로 장식되었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의사가 보호자와 환자 모두의 입원에 대하여 상의하였다는 것인지, 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의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의하였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성실한’이 ‘나’를 꾸미는 것인지, ‘나의 동생’을 꾸미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에 따라 “나의 성실한 동생은 이번 사업에 성공하였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002

정답 | ②

해설 | ‘옳다’는 겹받침 규칙에 따라 받침 ‘ㄷ’ 가운데 ‘ㄹ’이 탈락하여 ‘ㄲ’만 남게 되며, 홑받침 규칙에 따라 받침 ‘ㄲ’은 종성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옳다[읍따]’는 홑받침 규칙과 겹받침 규칙이 모두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파하기 |

- ① 1문단에 따르면 국어의 실제 발음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 따라서 ‘옳’의 받침 ‘ㄷ’은 종성에서 [ㄷ]으로 발음되므로 [온]이 된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국어의 음절 끝에는 자음이 최대 1개만 올 수 있으므로, 겹받침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옳다’는 홑받침 규칙에 따라 받침 ‘ㄲ’이 종성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딤따]가 된다. 따라서 ‘옳다[딤따]’는 음절 종성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지 못하므로 [딤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옳다[옳따]’는 받침 ‘ㄷ’ 가운데 ‘ㄹ’이 탈락하여 [ㄷ]만 발음된다. 따라서 ‘옳다[옳따]’는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003

정답 | ①

해설 | ‘헛웃음’은 ‘헛-(접사)+{웃-(어근)+-음(접사)}’의 구조로 ㉠에 해당한다. ‘비빔밥’은 ‘{비비-(어근)+-ㅁ(명사 파생 접사)}+밥(어근)’의 구조로 ㉡에 해당한다.

오답파하기 |

- ② ‘통조림’은 ‘통(어근)+{조리-(어근)+-ㅁ(명사 파생 접사)}’의 구조이므로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틈틈이’는 ‘{틈(어근)+틈(어근)+-이(접사)}’의 구조이므로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③, ④ ‘여닫이’는 ‘{열-(어근)+닫-(어근)+-이(접사)}’의 구조이므로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004

정답 | ④

해설 | 1문단의 “조선 후기는 신분 체제의 동요와 함께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 「노섬상좌기(老巖上座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기존 봉건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와 2문단의 “특히 「노섬상좌기」는 봉건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닌, 그들의 한계와 문제점 또한 지적한다.”를 통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신분 체제의 동요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파하기 |

- ① 백호산군이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무너지는지는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 ② 2문단의 “작품 속 백호산군은 힘과 권위에 기반한 봉건적 질서를 상정하며, 이에 맞서는 다양한 동물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흥 세력을 나타낸다. 이들의 대립과 갈등은”을 통해, 신흥 세력은 백호산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③ 신흥 상공업자들이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지문과 일치한다. 그러나 ‘신분 질서를 타파하려 하였다’

라는 부분은 지문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신분 체제의 동요와 봉건 질서의 해체는 언급되지만, 신흥 상공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신분 질서를 타파하려 했다는 의도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05

정답 | ③

해설 | 제시된 전제를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1. 캠핑 → 여행
전제2. 여행 ∧ 외향적
결론. 외향적 ∧ 캠핑

결론의 ‘외향적 ∧ 캠핑’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전제2의 ‘여행’을 ‘캠핑’으로 바꾸어 주면 된다. 즉, ‘여행 → 캠핑’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모두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다’이다.

오답파하기 |

- ① ‘외향적인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는 ‘외향적 ∧ 여행’이다.
- ② ‘캠핑을 즐기는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는 ‘캠핑 ∧ 여행’이다.
- ④ ‘외향적이지만 캠핑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는 ‘외향적 ∧ ~캠핑 → 여행’이다.

006

정답 | ③

해설 | 1문단의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 시인은 국화 한 송이의 피어 남조차 수많은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고, 자연의 섭리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겸허하게 성찰한다. 반면 나희덕의 「어떤 출토」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적 성찰이 두드러진다.”를 통해, 두 시 모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① 「어떤 출토」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적 성찰이 두드러지며,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불교의 인연설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작품은 오히려 「국화 옆에서」이므로, ①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인연의 법칙(불교의 인연설)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국화 옆에서」에 해당한다. 반면 「어떤 출토」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잊고 지내온 기억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은 「어떤 출토」에만 해당한다. 1문단에 따르면 「어떤 출토」는 땅속에 묻힌 유물의 출토 과정을 통해 잊고 지내온 기억과 내면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국화 옆에서」는 자연 현상을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자연의 섭리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내용이므로, 잊고 지내온 기억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과는 거리가 있다.

007

정답 | ④

해설 | 첫 단락 마지막 문장에 “소도시의 터미널은 몇 가지 인상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진술이 있으므로, 다음으로 전개될 내용에는 터미널에서 느껴지는 몇 가지 인상적인 특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제시

된 것은 (다)로, 시멘트 벽, 안내 소리, 벽시계, 크고 작은 짐 등을 열거하여 소도시 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특징이 열거되고 있다.

(다)의 마지막 문장의 “짐들이 ~ 사람들과 함께한다.”를 고려할 때, 다음으로 전개되어야 할 내용은 ‘짐’, ‘사람’과 관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나)로, “그러다 서로의 짐이 우연히 마주 대어 있는 걸 보곤 눈웃음을 나눈다.”로 시작하는 첫 문장을 통해 (나)는 (다) 뒤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의 첫 문장 “그래서 터미널은 더 이상 종점이 아니다. 전환점이기도 하고 경유지이기도 한 터미널”을 보면, “그래서”라는 접속부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 · 근거 ·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부사’이므로, (가) 앞에는 ‘터미널이 전환점이기도 하고 경유지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 앞에는 ‘터미널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들이 소통하는 장면이 제시’된 (나)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08

정답 | ①

해설 |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일대일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Ⅱ.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저조 원인’으로 제시된 세 가지 항목에 대응하도록 해결 방안을 설정해야 하는데, ①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는 Ⅱ에서 제시한 원인에 일대일 대응하는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② ‘Ⅱ-1. 청소년 참여기구들의 형식적이고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채로운 청소년 참여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 ③ ‘Ⅱ-2. 청소년 참여기구에 관한 홍보 부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 ④ ‘Ⅱ-3. 청소년 참여기구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기구 간의 역할 정립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009

정답 | ③

해설 | 1문단의 “실용적 가치 때문에 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2문단의 “소의 모든 부분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된다. ~ 상위 계층뿐 아니라 하위 계층에게도 소가 귀중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를 통해, 소 송배가 인도 사회 구조와 경제 환경에 깊이 뿌리내린 합리적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① 1, 2문단 모두 소 송배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 농경사회 구조, 실용적 가치 등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신성한 선택”이라고만 하면 경제적 ·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 설명이 되므로, ①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1문단에서는 소 송배 문화가 “고대 인도”의 농경사회 전환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현대 산업화 이후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 오랜 농경사회와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된 전통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지문에서는 소 승배가 계층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통합적 사상”의 결과물임을 강조하지 않았다. 지문에서는 소 승배를 경제·사회 구조와 실용적 가치, 생계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10

정답 | ④

해설 | 2문단의 ‘이 관찰자가 동감을 보인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는다. 이와 같은 동감의 범위 내에서 이타적 행위뿐 아니라 이기적 행위도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는다면, 이기적인 행위라도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파하기 |

- ① 2문단의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관찰자 입장에 두고 반성하는 ‘관찰자’를 내면화하며”를 통해, 공평한 관찰자는 개인 내면의 ‘추상적 존재’로, 외부의 실체가 아닌 주관적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구체적 인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3문단의 “스미스는 자해와 정의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전자(→자해)는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이지 않으나”를 통해, “자해는 사회 존속의 필수 조건”이라는 진술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문에서 ‘자해가 정의보다 더 중요’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③ 1문단의 “동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처지에 자신을 상상적으로 대입하여 행위자와 감정적으로 일치하는 능력이다. 스미스는 이때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관찰자’가 행위자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를 통해, “동감이 타인의 감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수동적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관찰자를 통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 과정을 거치는 능동적 작용임을 알 수 있다.

011

정답 | ①

해설 | ⑦의 ‘두다’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①의 ‘두다’ 또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파하기 |

- ② ‘일정한 곳에 놓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주로 ‘두고’ 꼴로 쓰여, 앞의 것을 부정하고 뒤의 것을 긍정하거나 선택할 때 쓴다.

012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전제를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병: 전제1. A학생 → B학생
전제2. C학생 → ~B학생 ≡ B학생 → ~C학생
결론. A학생 → ~C학생

전제1과 전제2의 대우를 결합하면 ‘A학생 → B학생 → ~C학생’이 된다. 따라서 결론의 ‘A학생 → ~C학생’이 도출된다.

오답파하기 |

갑: 전제1. 입원 ∧ 허리 디스크
전제2. 허리 디스크 → 휠체어
결론. 입원 → 휠체어

전제1에서 전제2를 활용하여 ‘입원 ∧ 휠체어’가 도출된다. 그러나 결론의 ‘입원 → 휠체어’는 도출되지 않는다.

을: 전제1. 국문과 → 감수성 ∨ 맞춤법
전제2. 국문과 ∧ 감수성
결론. 맞춤법

전제2에 따라 ‘국문과’, ‘감수성’이 확정된다. 그러나 결론의 ‘맞춤법’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013

정답 | ②

해설 | 바로 앞 문장에서 “중앙은행은 ~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라고 설명했으므로, 후술되는 내용은 “금리(이자율)가 낮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은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율이 ‘매우 높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흐름상 어색하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은행의 부담이 낮아진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파하기 |

- ① 바로 앞의 내용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 런) 등으로 인해 은행의 자금이 급격히 부족해질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그대로 두는 것이 흐름에서 자연스럽다. ㉠처럼 ‘사람들의 자금 마련’을 제시하면 어색해진다.
- ③ 앞 문단에서 은행이 뱅크 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에는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이 ‘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 ④ ‘중앙은행’이 은행을 도와줌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은 ‘은행’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14

정답 | ④

해설 | 반대 측은 인간 복제가 난치병 치료와 장기 부족 문제 해결 등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복제 기술이 난치병 치료에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던 사례는 반대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예에 해당하므로, 반대 측 주장을 약화한다. 따라서 ④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① 찬성 측은 인간 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복제 연구의 긍정적 성과(신약 개발, 생명 연장)는 인간 복제의 실용적 이점을 강조하는 논거이므로,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
- ② 찬성 측은 인간 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물 복제의 부작용과 낮은 성공률은 인간 복제의 위험성과 비윤리성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므로, 찬성 측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
- ③ 반대 측은 인간 복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전적 다양성 감소로 인한 위험은 인간 복제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반대 측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

015

정답 | ④

해설 | 2문단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조직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고려할 때, ‘조직 전체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 ① 3문단에서, 리더의 능력과 덕목이 미래 인재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리더는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조직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리더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덕목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2문단),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3문단)

016

정답 | ③

해설 | ㉠~㉣의 문맥상 지시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배: 조직
- ㉡ 오케스트라 지휘자, ㉢ 길잡이: 리더
- ㉣ 각기 다른 악기 소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 ㉤ 넓은 바다: 포용력과 공감 능력

따라서 ㉠~㉣ 중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이다.

017

정답 | ③

해설 | 갑의 첫 번째 대화 “익명 뒤에 숨어 무책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과, 을의 “나는 익명성이 오히려 온라인 집단행동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강화한다고 봐. 책임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병의 “너희가 말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자기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을 통해, 갑, 을, 병 모두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책임감이 감소하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병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 ① 갑의 첫 번째 대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줘. ~ 하지만 이런 자유로 인해 ~ 익명 뒤에 숨어 무책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과, 병의 “너희가 말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자기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익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검열이 심해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있어.”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② 을의 “나는 익명성이 오히려 온라인 집단행동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강화한다고 봐.”와, 병의 “인터넷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자기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④ 병의 “그렇지만 실명제에 무조건 찬성할 수만은 없어. ~ 아예 익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검열이 심해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있어.”와, 갑의 두 번째 대화 “맞아. 익명성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야 해.”를 통해, 실명제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을은 실명제 도입을 주장할 뿐,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018

정답 | ①

해설 | 제시된 조건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 조건1. 평일 → ~조기 축구 모임 ≡ 조기 축구 모임 → ~평일
- 조건2. 조기 축구 모임 → ~폭설 ≡ 폭설 → ~조기 축구 모임
- 조건3. 재택근무 → 폭설 ≡ ~폭설 → ~재택근무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확정되는 것이 없으므로 선택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면 이 주무관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조기 축구 모임 → ~재택근무’이다. 조건2와 조건3의 대우를 결합하면 ‘조기 축구 모임 → ~폭설 → ~재택근무’가 된다. 따라서 ‘조기 축구 모임 → ~재택근무’가 도출된다.

오답피하기 |

- ②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면 이 주무관은 재택근무를 한다’는 ‘조기 축구 모임 → 재택근무’이다. 그러나 조건2와 조건3의 대우를 결합하면 ‘조기 축구 모임 → ~폭설 → ~재택근무’가 된다. 따라서 ‘조기 축구 모임 → ~재택근무’가 도출된다.
- ③ ‘이 주무관이 재택근무를 한다면 평일이다’는 ‘재택근무 → 평일’이다. 그러나 조건1의 역인 ‘~조기 축구 모임 → 평일’은 성립하지 않아 조건3, 조건2의 대우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재택근무 → 평일’은 도출되지 않는다.
- ④ ‘평일이라면 폭설이 내린 날이다’는 ‘평일 → 폭설’이다. 그러나 조건2의 이인 ‘~조기 축구 모임 → 폭설’은 성립하지 않아 조건1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평일 → 폭설’은 도출되지 않는다.

019

정답 | ④

해설 | 아도르노는 대중을 비판적 사유 없이 문화 산물을 소비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런데 문화산업의 메시지를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견해는 아도르노의 주장과 상반되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약화하므로 ④는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 ① 아도르노는 표준화된 문화 상품은 반복 노출을 통해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수동적 수용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대중문화 작품이 존재한다는 점은 오히려 대중문화가 비판적 사유와 사회적 인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아도르노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
- ②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표준화된 문화 상품을 공급하고 반복 노출시킴으로써 수용자를 정신적 불구 상태로 만든다고 보았다. ‘대중문화가 인간의 욕구를 조작하고, 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든다는 주장’ 또한 이러한 아도르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므로, 아도르노의 주장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주장으로 봐야 한다.
- ③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표준화와 사이버 개성화에 머무르며 창의적 가치를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웹툰 플랫폼에서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가 생산되는 현상은 대중문화의 표준화와 사이버 개성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과 반대되는 사례이므로, 아도르노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

정답 | ①

해설 | ㉠의 ‘명명하다’는 ‘사람, 사물, 사건 따위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믿다’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의미이므로 ‘명명하다’와 유사한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바뀌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② ㉡의 ‘환원하다’는 ‘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다.’라는 의미이므로, ‘되돌리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 ③ ㉢의 ‘창출하다’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내다.’라는 의미이므로, ‘만들어 내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 ④ ㉣의 ‘훼손하다’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므로, ‘부수거나 찌그러지게 하여 못 쓰게 만들다.’의 의미인 ‘망가뜨리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모의고사

02회

001 ③	002 ②	003 ①	004 ①	005 ②
006 ③	007 ②	008 ①	009 ②	010 ④
011 ③	012 ④	013 ③	014 ③	015 ②
016 ④	017 ③	018 ④	019 ④	020 ③

S#.2 국가직, 지방직보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 1) 킬러1 문법 [2번]
 2) 킬러2 순서 [7번]
 3) 킬러3 강화 약화 [14번]

지방직 지문의 글자 수는 7100자 정도, 국가직 지문의 글자 수는 7500자 정도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길어진다면 학생들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번 회차 지문의 글자 수는 7728자, 평균 정당률은 83%이다. 지방직, 국가직에서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이번 회차에서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었을 것이다. 킬러 문제 중 강화 약화 문제의 경우, 생소한 형태로 출제해 보았다. 시중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종종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001

정답 | ③

해설 | “신청한 서류를 제출 마감일”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목적격 조사 ‘를’을 사용하려면, 대상인 ‘서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서술해 줄 수 있는 동사가 뒤따라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 ‘제출’ 대신 동사 ‘제출하다’를 사용하여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는 마감일을 안내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실질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보다는 관형격 조사 ‘의’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즉 “신청한 서류의 제출 마감일을 안내합니다.”처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파하기 |

- ① 수식어가 과도하게 중첩되어 문장이 복잡하므로,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계정’을 의미하는 “어카운트”와 ‘이용, 접근’을 의미하는 “액세스” 등의 외국어를 사용하면 그 내용을 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계정을 만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맥락상 “청결”과 “막는다”라는 단어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청결”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는 서술어인 ‘유지하다’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

정답 | ②

해설 | ‘봄날이 가면서 꽃잎이 떨어진다’는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즉, ‘떨어진다’는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서 ‘-ㄴ-’은 미래 시제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① 지문에 따르면 ‘저는 꼭 목표를 이루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내일 눈이 내리겠다’의 경우에는 미래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지문에 따르면 ‘이 시간에 도착했네요’는 미래가 아닌 과거나 현재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그곳에도 바람이 많이 불겠다’ 역시 미래가 아닌 현재 추측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서 ‘-겠-’은 미래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지문에 따르면 ‘저는 꼭 목표를 이루겠습니다’는 주체의 ‘의지’를 강조하며, ‘-겠-’은 미래 시점 그 자체보다는 화자의 태도와 관점이 드러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일은 반드시 끝마치겠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서 ‘-겠-’은 화자의 태도와 관점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03

정답 | ①

해설 | ‘아들’이란 단어에는 ‘남자’라는 의미가 내포되므로, 이 둘은 유의 관계가 아니다.

오답파하기 |

- ② ‘뛰다-달리다’는 서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 ③ ‘모름지기-마땅히’는 서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 ④ ‘숨지다-사망하다’는 서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004

정답 | ①

해설 | 지문에서는 지상계와 수궁계가 각각 땅 위의 세계와 바닷속 용궁을 의미하며, 두 공간의 대립이 인물의 욕망, 위기, 극복 등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대립이 ‘평범과 비범’의 대립 양상으로 연결된다고 한 부분은 지문 어디에서도 알 수 없다. 지문은 공간의 이동과 적응, 변화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상계는 평범하고 수궁계는 비범하다는 식의 가치 대립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파하기 |

- ② 지문에서는 공간 이동의 유연함을 가진 토끼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반면, 공간에 고착된 용왕이나 자라가 패배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2문단의 “이처럼 공간 이동의 가능성은 곧 인물의 생존과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즉 공간의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

니라, 인물의 욕망 실현과 위기 극복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단순한 배경 변화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욕망과 생존 전략, 그리고 극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다.

005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전제를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1. 최신 정보 → 대응력
전제2. 대응력 ∧ 해박한 지식
결론. 해박한 지식 ∧ 최신 정보

결론의 ‘해박한 지식 ∧ 최신 정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전제2의 ‘대응력’을 ‘최신 정보’로 바꾸어 주면 된다. 즉, ‘대응력 → 최신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최신 정보에 민감하다’이다.

오답파하기 |

- ① ‘최신 정보에 민감한 어떤 사람은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는 ‘최신 정보 ∧ 대응력’이다.
- ③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지 않은 사람은 모두 최신 정보에 민감하지 않다’는 ‘~대응력 → ~최신 정보’이다.
- ④ ‘급변하는 외부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어떤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대응력 ∧ ~해박한 지식’이다.

006

정답 | ③

해설 | 2문단에서 「파발가에서」의 화자는 파발이라는 자연 풍경을 통해 삶의 본질과 존재 의미를 성찰하며, 자연과의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3문단에서는 「눈길」의 화자가 내면의 번민과 구도적 과정을 통해 자기 성찰과 깨달음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③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① 1문단에서는 두 시 모두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뇌와 자기 성찰의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방향과 내면의 번민을 시적 언어로 풀어낸다고 설명한다. 「눈길」뿐 아니라 「파발가에서」 역시 자연과 자아, 현실과 내면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①의 「파발가에서」와 달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두 시 모두 현실의 고통과 허무함을 자기 성찰로 풀어내는 공통점이 있다. 「파발가에서」의 화자는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며, 「눈길」의 화자는 번민과 구도적 과정을 거쳐 자기 성찰과 깨달음에 이른다. 즉 두 시 모두 자기 내면을 향한 성찰을 통해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파발가에서」에서는 파발의 푸르름이 희망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눈길」에서는 눈길이 차가운 현실과 고독, 깨달음의 계기를 상징한다. 따라서 두 시 모두 자연의 색채를 통해 희망과 생명력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07

정답 | ②

해설 |

- (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 (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더불어”에 주목할 때 앞에서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 뒤에 (라)가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반영하는 선지는 ②, ③이다.
- (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대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한편”을 고려할 때 (다) 앞에 다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를 첫 문단으로 제시한 ③과 ④는 틀린 선지이다. 그런데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②와 ③에서 ③이 소거되고 나면, 정답은 ②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할 때 시민 단체가 정당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히”에 주목할 때 앞에서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 뒤에 (가)가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08

정답 | ①

해설 |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일대일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Ⅱ.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항목에 대응하도록 해결 방안을 설정해야 하는데, ①의 ‘무분별한 음식물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는 Ⅱ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즉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한다는 내용이 실태나 문제점에서 제시되어야 ①이 해결 방안으로 적절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파하기 |

- ② ‘Ⅱ-(1)-1. 소각과 매립 위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 마련’은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③ ‘Ⅱ-(1)-2. 명확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 확립’은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④ ‘Ⅱ-(2)’에서 소각 방식과 매립 방식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개발’은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009

정답 | ②

해설 | 3문단에 “최근에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거나,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만 언급되었을 뿐, “평일 전환 후 전통 시장의 매출 감소가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2문단의 “대형 마트 휴무일에 전통 시장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고 발표하지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는 다른 자료도 있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① 1문단의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일부 조사에서는 대형 마트뿐 아니라 전통 시장 매출도 10~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정부나 일부 기관에서는 대형 마트 휴무일에 전통 시장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고 발표하지만, 그 증가분은 대형 마트 매출 감소분의 20%에 불과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010

정답 | ④

해설 | 1문단을 통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 등 총수요 측면’에서의 관리를 통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경기 안정을 꾀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문단에 따르면, ‘합리적 기대를 가진 경제 주체’는 외부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제 주체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을 따르거나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만약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정책 효과는 약화될 것이므로, “합리적 기대를 가진 경제 주체는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① 3문단의 “세계 각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를 통해 ①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경기 변동의 원인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경제 환경과 시대에 따라 그 해석과 대응도 달라진다.”를 고려할 때,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경기 변동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총수요 측면 외에도 경기 변동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경기 변동은 실질 GDP가 ‘단기 추세선’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추세선’에서 이탈하는 것이므로, 경기 변동을 실질 GDP가 ‘단기 추세선’에서 이탈하는 현상으로 진술한 ③은 적절하지 못하다.

011

정답 | ③

해설 | ㉔의 ‘촉발되다’는 ‘당거나 부딪쳐 폭발하다.’라는 의미이다. 반면 ‘짓아지다’는 ‘어떤 일이나 행위 따위가 자주 있게 되다.’라는 의미로 ‘촉발되다’와 바뀌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① ㉔의 ‘의미하다’는 ‘행위나 현상이 무엇을 뜻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뜻하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 ② ㉔의 ‘변화하다’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라는 의미이므로 ‘바뀌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 ④ ㉔의 ‘전파되다’는 ‘전하여져 널리 퍼뜨려지다.’라는 의미이므로 ‘퍼뜨려지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012

정답 | ④

해설 | 제시된 전제를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추천제 → 공직 ≡ ~공직 → ~국민추천제

(나) 전문성 ∧ ~공직

(나)에서 (가)의 대우를 활용하여 ‘전문성^~국민추천제’가 도출된다. 따라서 정답은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중 일부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이다.

오답파하기 |

- ①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다’는 ‘공직 → 전문성’이다.
- ②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모두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는 ‘전문성 → 국민추천제’이다.
- ③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학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다’는 ‘국민추천제 → 전문성’이다.

013

정답 | ③

해설 | 바로 다음 문장인 “다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를 보자. ‘다만’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이므로, ㉠에는 ‘다만 격렬한 운동 ~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는 ‘비타민 C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은 ③의 진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파하기 |

- ① 바로 다음 문장인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일상적인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를 고려하면, ㉠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타민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바로 다음 내용인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를 고려할 때, ㉠에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④ 바로 앞 문장인 “비타민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속쓰림, 설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를 고려하면, ㉠에는 비타민 과다 복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은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014

정답 | ③

해설 | 미래주의는 ‘전통을 철저히 부정’하고 현대와 일상의 생동감만을 예술의 본질로 삼는다. 따라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진정한 예술의 요건 중 하나로 간주하는 ③의 주장은 미래주의와 반대되는 관점이므로, 미래주의를 약화한다.

오답파하기 |

- ① 1문단의 “기존의 박물관 예술 대신 일상의 생동감을 예술의 본질로 삼았다.”를 통해 미래주의는 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의 생동감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동감이 죽어 있다는 이유로 박물관에 소장된 예술을 비판하는 ①의 주장은 미래주의를 강화한다.
- ② 미래주의는 속도 · 기계 · 현대 문명을 찬미하며 작품을 통해 현대 문명의 속도감을 담아내려 하였다. (1~2문단) 따라서 기차, 자동차, 도시 군중에서 느껴지는 속도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담아내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는 ②의 주장은 미래주의의 입장을 강화한다.

- ④ 2문단의 “미래주의는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무솔리니 파시즘과의 연계, 전쟁 참여, 무정부주의 성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저평가되었다.”를 통해 미래주의의 사회 참여적 경향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예술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④의 주장은 미래주의를 강화한다.

015

정답 | ②

해설 | 회피형 전략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전략이다. 반면 경쟁적 전략은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물리적 폭력까지 포함한다.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회피형 전략과는 달리, 경쟁적 전략은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오답파하기 |

- ① 경쟁적 전략은 회피형 전략에 비해 확실히 적극적인 전략이다. (2문단)
- ③ 부모와 자식처럼 단절이 어려운 관계에서는 대화가 단절될 수 있지만, 선의의 목적이 명확히 전달된다면 경쟁적 전략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2문단)
- ④ 회피형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경쟁적 전략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떨어진다. 따라서 경쟁적 전략과 회피형 전략 ‘모두’ 자주 사용하면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016

정답 | ④

해설 | ㉠의 ‘이르다’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이르다’는 ④이다.

오답파하기 |

- ① ‘알아듣거나 깨닫게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어떤 사물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17

정답 | ③

해설 | 을의 두 번째 대화 “구조적으로 너무 엄격하고 정형화되지만 한 고전음악은”을 통해, 을도 고전음악이 ‘구조의 엄격성’을 중시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① 갑의 두 번째 대화 “고전음악은 청중들이 감정을 차분히 음미하며 음악을 감상하는 데 적합해.”와, 을의 두 번째 대화 “너무 엄격하고 정형화되지만 한 고전음악은 우리에게 조용히 감상하기만을 원하는 듯해.”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② 을의 첫 번째 대화 “현대음악은 고전음악과 달리 감정을 훨씬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해. ~ 그래서 청중의 반응도 다양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편이야.”와, 병의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듣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음악도 좋아.”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④ 병의 “그래서 나는 고전과 현대음악의 차이를 단순 대립으로 보지 않고, 시대적 맥락에서 서로 보완한다고 생각해.”를 통해, 병은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작 동기가 서로 다르지만 시대 맥락에서 보완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 | 제시된 조건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 조건1. ~갑 → ~을
조건2. ~갑 → ~병 ≡ 병 → 갑
조건3. 정 → 병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확정되는 것이 없으므로 선택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한다면, 갑도 지원한다’는 ‘정 → 갑’이다. 조건3과 조건2의 대우를 결합하면 ‘정 → 병 → 갑’이 된다. 따라서 ‘정 → 갑’이 도출된다.

오답파하기 |

- ① ‘갑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한다면, 정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갑 → ~정’이며, 대우는 ‘정 → ~갑’이다. 그러나 조건3과 조건2의 대우를 결합하면 ‘정 → 병 → 갑’이 된다. 따라서 ‘정 → 갑’이 도출된다.
② ‘을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한다면, 병도 지원한다’는 ‘을 → 병’이다. 그러나 조건에서 ‘을 → 병’은 도출되지 않는다.
③ ‘을이 국민기자단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정은 지원한다’는 ‘~을 → 정’이다. 그러나 조건에서 ‘~을 → 정’은 도출되지 않는다.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실천과 노력을 통해 쌓아간다고 보았다. (3문단) 이는 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

오답파하기 |

- ① 소피스트들은 진리와 가치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1문단)
②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 진리와 윤리적 삶을 강조했다. (2문단) 반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많다면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약화된다.
③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불변하는 이성적 세계만을 진정한 실재로 보았다. (3문단) 따라서 수학적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플라톤의 주장은 강화된다.

해설 | ㉠의 ‘삼다’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의 ‘삼다’ 또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파하기 |

- ① ‘깊신이나 미투리 따위를 곁어서 만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주요 ‘삼아’ 꼴로 쓰여)) 무엇을 무엇으로 가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모의고사

03회

001 ②	002 ③	003 ①	004 ④	005 ④
006 ②	007 ②	008 ④	009 ①	010 ②
011 ④	012 ②	013 ④	014 ③	015 ①
016 ③	017 ③	018 ③	019 ④	020 ④

S#3 중·하위권에 불리하게 출제된다면...

- 1) 킬러1 문법 [3번]
- 2) 킬러2 어휘 [8번]
- 3) 킬러3 지시 대상 파악하기 [10번]
- 4) 킬러4 논리 [15번]
- 5) 킬러5 강화 약화(화법) [19번]

이번 회차는 지문의 글자 수 6919자로 짧은 편에 속하며, 평균 정답률은 77%로 어려운 편에 속한다. 킬러 문제는 5문제지만 킬러 문제가 아닌데도 만만찮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중위권과 하위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되겠지만 상위권은 풀 만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매우 어려운 킬러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설 |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고’와 ‘공동체 생활을 익힘으로써’는 대등한 구조이다. 반면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와 ‘공동체 생활의 익힘으로써’는 대등한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답파하기 |

- ① 이 글 자체가 공고문이므로 제목에 있는 ‘공고’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제목을 불필요한 표현 없이 간결하게 쓴다’라는 지침에 따라 ㉠을 ‘모집’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접수’는 기관에서 하며, 참가자는 서류를 ‘제출’한다. 따라서 ‘참가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용어를 선택한다’라는 지침에 따라 ㉠을 ‘방문 제출’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해야 함’보다 ‘~하기 바랍니다’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고압적 표현을 삼간다’라는 지침에 따라 ㉠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002

정답 | ③

해설 |

- ㉠: <보기>는 신용 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 카드의 올바른 사용’은 ‘제목’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 ㉡: <보기>는 신용 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 원인, 해결 방안을 각각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은 ‘결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003

정답 | ①

해설 | ‘높다’는 형용사인데 접사 ‘-이-’가 결합한 ‘높이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이-’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이다. 한편, ‘답이 높다’는 주동문인데 ‘인부들이 답을 높이다’는 사동문이다. 따라서 ‘-이-’는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접사이다. 즉, 접사가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까지 달라진 파생어에는 ‘높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 ‘그는 통로를 막았다’는 능동문인데 ‘통로가 막히다’는 피동문이다. 따라서 ‘-히-’는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접사이다. 그러나 ‘막다’와 ‘막히다’는 모두 동사로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 ㉢: ‘공부’는 명사인데 접사 ‘-하다’가 결합한 ‘공부하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하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이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 ㉣: ‘슬기’는 명사인데 접사 ‘-롭다’가 결합한 ‘슬기롭다’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롭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이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004

정답 | ④

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내부 귀인은 ‘성격, 능력, 노력’과 같은 사람 자체의 내적인 특성에 원인을 두는 귀인이고, 외부 귀인은 ‘환경, 운, 상황’과 같은 외부 요인에 원인을 두는 귀인이다. 그런데 ④에서는 두 귀인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환경과 상황’을 들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환경과 상황’ 모두 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두 요인 중 어디에 원인을 두는지는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파하기 |

- ① 3문단의 “어떤 사람의 실패를 그 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근본적 귀인 오류’”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심리학에서 ‘귀인’이라 부르는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의 “자신에게는 외부 요인을, 타인에게는 내부 요인을 더 강조하는 ‘행위자-관찰자 편향’ 같은 현상”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005

정답 | ④

해설 | 3문단에서는 “결국 드레퓔스 사건은 지식인이 단순한 학문적 활동을 넘어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존재로 자

리 잡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인권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④의 진술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① 지문에서는 지식인의 개념을 ‘학문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② 2문단의 “이때 유명한 작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드레퓔스의 재심과 석방을 촉구했다. 이후 문학가, 예술가,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지식인’이라 자처하며 드레퓔스 사건에 목소리를 냈다.”를 고려할 때, ‘강력한 투쟁과 저항’이라는 표현은 지문의 ‘공개서한 발표’, ‘목소리를 냄’ 등의 표현과는 차이가 있는 지나치게 과격한 어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지문에서는 개인적 신념이나 조직화된 집단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06

정답 | ②

해설 | 선지의 정답 구성으로 볼 때, 첫 단락은 (나) 아니면 (다)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나)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다)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다)처럼, 문제 현상에 대한 제시 없이 바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나)를 첫 단락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 아니면 ②로 좁혀진다.

이제 (나) 다음 문단으로 위치할 문단이 (다)인지 (라)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다)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나) 다음에 위치하면 내용의 흐름이 부자연스럽다. (나)에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소개한 뒤 갑자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뒤에는, 우리나라 또한 물이 부족하다는 현황을 제시하는 (라)가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나):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 또한 물이 부족하다는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07

정답 | ②

해설 | 3문단의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은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백신’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평가일 뿐, 마르크스 본인이 ‘자본주의의 자기 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즉 ②의 진술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① 2문단의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발전이 물질적 조건의 변화,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적 유물론’을 주장했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기업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 결국 마르크스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면”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 ④ 1, 2문단의 “자본주의의 내적 결함이 결국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평등한 공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008

정답 | ④

해설 | ‘기립하다’는 ‘일어나서 서다.’라는 뜻이므로,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㉔의 ‘일어나다’와 바뀌 쓰기에는 부자연스럽다.

오답피하기 |

- ① ‘신랄하다’는 ‘사물의 분석이나 비평 따위가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다.’라는 뜻이므로, ㉑의 ‘날카롭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② ‘달성되다’는 ‘목적인 것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이므로, ㉒의 ‘이루어지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③ ‘직면하다’는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하다.’라는 뜻이므로, ㉓의 ‘처하다’와 바뀌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009

정답 | ①

해설 | 1문단의 “‘지질 탐사’는 ~ 초기 탐사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었다.”와, 4문단의 “탐사 시추는 석유 매장 후보 지역에 시추정을 직접 박아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하는 초기 단계의 탐사 방식이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 ② 3문단의 “‘지구물리 탐사’는 지하의 구조를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탄성과 탐사’와 ‘중력·자력 탐사’가 있는데”를 통해, 중력·자력 탐사는 ‘시추 탐사’가 아니라 ‘지구물리 탐사’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탄성과 탐사는 인공적으로 지표에 충격파를 발생시켜 그 반사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를 통해, 탄성과 탐사는 지표에 ‘자연 충격파’가 아닌 ‘인공 충격파’를 가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지질 조사는 암석의 유형과 배열 상태를 분석하여 유전이 예상되는 구조를 찾아내는 조사 방법이다. 반면, 지구화학 조사는 토양, 암석, 물에서 탄화수소의 흔적을 탐지하여 목표 대상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를 통해, ‘지질 조사는 탄화수소의 흔적을 탐지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10

정답 | ②

해설 | ㉑과 ㉔은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형 구조’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 그러나 ㉑은 ㉒, ㉔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전체 지역을 지시하며, ㉔은 ㉒, ㉔을 발견하기 위해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대상을 지시한다. 즉, ㉑이나 ㉔을 먼저 조사한 후 ㉒, ㉔과 같은 구조를 찾아야 하므로 지시 대상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②번이다.

011

정답 | ④

해설 | 2문단의 “이처럼 백색의 고향은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친밀하고 안정된 공간, 즉 실존의 안식처로서 상징성을 지닌

다.”와 3문단의 “즉 고향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자 출발점이었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실존의 공간이 된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 ① 백색의 「고향」은 고향을 일상적 삶의 원형이자 변하지 않는 자아의 중심, 즉 불변성과 원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유동성과 재창조 가능성에 의미를 두는 것은 허세욱의 「움직이는 고향」의 특징이므로, ①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허세욱의 「움직이는 고향」은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고향이 이동과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유동적 공간임을 강조한다. 모성과 연결된 따뜻함, 불변성, 원형성은 오히려 백색의 「고향」에 해당하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움직이는 고향」은 고향이 현재의 삶과 경험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 「고향」은 변하지 않는 자아의 중심, 원형적 공간에 더 큰 의미를 둔다. 따라서 ③의 진술처럼 두 작품 모두가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둔다고 보기는 어렵다.

012

정답 | ②

해설 | (가)는 화자에게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띤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㉑이다. ‘이전 고향’은 어머니, 익숙한 향취와 인연이 자리했던 안정감을 주는 고향이다. 반면 ㉔은 이전 고향의 따뜻한 느낌을 잃어버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㉔에는 불안감만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이제 필자에게 고정된 고향이란 없다. 과거 따뜻한 고향은 상실되었을 뿐이다. 그에게 고향은 변화하는 공간, 즉 ㉔의 의미를 띠는 것이다.

013

정답 | ④

해설 | ㉑: ‘검붉다’는 ‘검다’와 ‘붉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피하기 |

- ① ㉑: ‘썩썩하다’는 명사 ‘썩’과 동사 ‘썩다’가 ‘주어+서술어’의 형태로 결합하며,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㉑: ‘첫사랑’은 관형사 어근 ‘첫’과 명사 어근 ‘사랑’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㉑: ‘타고나다’는 ‘타다’와 ‘나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 ‘-고’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014

정답 | ③

해설 | 2문단에서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원뿔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특정 색 구분이 어렵게 된다. ~ 세포 두 종류가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색의 밝기만 느낄 수 있는 색맹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원뿔세포가 두 종류 모두 기능하지 않아도 ‘색의 밝기 구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면 색의 밝기 구별 역시 불가능하다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 ① 1문단의 “보라색이나 빨간색의 양쪽 끝에서는 두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를 통해,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양 끝, 즉 파장이 매우 짧은 영역(보라)과 매우 긴 영역(빨강)은 사람의 색 변별 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색을 감지하는 망막에는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다. 이 세포들은 각각 빨강, 초록, 파랑 계열의 빛에만 반응하며”를 통해, 녹색과 빨강 계열의 색을 구별하는 데에는 별도의 원뿔세포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그러나 어떤 종류의 원뿔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특정 색 구분이 어렵게 된다.”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015

정답 | ①

해설 | 주어진 조건들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sim(\text{김} \wedge \text{이}) \equiv \sim\text{김} \vee \sim\text{이}$
 조건2. $\text{김} \vee \text{박}$
 조건3. $\text{최} \rightarrow \text{김} \equiv \sim\text{김} \rightarrow \sim\text{최}$
 조건4. $\sim\text{이} \rightarrow \sim\text{김} \equiv \text{김} \rightarrow \text{이}$

- 1)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도출되는 것이 없으므로, 조건2인 ‘ $\text{김} \vee \text{박}$ ’에서 선언지 제거에 따라 ‘ $\sim\text{김}$ ’이 확정된다. 이는 모순이므로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 (1) ‘ 김 , $\sim\text{박}$ ’
 ‘ 김 ’이 확정되면 조건4의 대우에 따라 ‘ 이 ’가 확정되고, 조건1에서 선언지 제거에 따라 ‘ $\sim\text{김}$ ’이 확정된다. 이는 모순이므로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 (2) ‘ $\sim\text{김}$, 박 ’
 ‘ $\sim\text{김}$ ’이 확정되면 조건3의 대우에 따라 ‘ $\sim\text{최}$ ’가 확정된다. 확정된 것을 정리하면 ‘ $\sim\text{김}$, 박 , $\sim\text{최}$ ’이며, ‘ 이 ’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3) ‘ 김 , 박 ’
 ‘ 김 ’이 확정되면 조건4의 대우에 따라 ‘ 이 ’가 확정되고, 조건1에서 선언지 제거에 따라 ‘ $\sim\text{김}$ ’이 확정된다. 이는 모순이므로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 2)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주무관은 학사 야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다’이다.

016

정답 | ③

해설 | 주어진 조건들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산불진화 $\wedge$ 사업자 선정
 조건2. 조류대응 $\rightarrow$ 사업자 선정
 조건3. 산불진화 $\rightarrow$ 화재 대응 능력
 조건4. $\sim\text{조류대응} \rightarrow \sim\text{사업자 선정} \equiv \text{사업자 선정} \rightarrow \text{조류대응}$

- 1) 조건3에 따라 ‘산불진화’는 ‘화재 대응 능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조건4의 대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은 ‘조류대응’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1), 2)에 따라 조건1인 ‘산불진화 $\wedge$ 사업자 선정’은 ‘화재 대응 능력 $\wedge$ 조류대응’으로 변형할 수 있다.
- 4) 3)에서 도출된 ‘화재 대응 능력 $\wedge$ 조류대응’은 교환 법칙에 따라 ‘조류대응 $\wedge$ 화재 대응 능력’으로 변형할 수 있다.
- 5) 따라서 정답은 ‘조류대응 드론 개발이 추진되는 동시에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겠군요’이다.

017

정답 | ③

해설 | (가) ‘최근 연구 결과’는 유전자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이러한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새로운 발현 과정이 형성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기>의 ㄴ과 ㄷ은 이러한 최근 연구 결과를 강화하는 사례이다.

- ㄴ. 복제 동물이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전혀 다른 신체적 특성이 발현되었다는 것은, 개체의 특성이 유전자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므로 (가)를 강화한다.
- ㄷ. 아동이 공해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 유전병인 천식의 유병률[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환자 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천식이 유전적 요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공기 오염)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가)를 강화한다.

오답파하기 |

- ㄱ. 두 과일의 유전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과일을 만든 사례는 유전자 조합 기술에 의한 것일 뿐, 유전자가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새로운 발현 과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ㄴ은 (가)를 강화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018

정답 | ③

해설 | ‘난해하다’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풀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의 ‘어렵다’와 바꿔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파하기 |

- ① ‘상실하다’는 ‘어떤 것을 아주 잃거나 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 ‘잃다’와 바꿔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 ② ‘발현되다’는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 ‘나타나다’와 바꿔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 ④ ‘구명되다’는 ‘사물의 본질, 원인 따위가 깊이 연구되어 밝혀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의 ‘드러나다’와 바꿔 쓰더라도 자연스럽다.

019

정답 | ④

해설 | ㄱ~ㄷ 중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ㄴ과 ㄷ이다.

- ㄴ. 갑은 두 번째 대화에서 “시민 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라고 하며, 시민 사회로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럽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가 주민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갈등을 줄인 사례는 그러한 갑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므로,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 ㄷ. 을은 시민 사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 토론회에서 소수 의견이 묵살된 사례는 시민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능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므로,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오답파하기 |

- ㄱ. 을은 시민 사회가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이 심화되어 시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주장은 시민 사회의 역할만으로는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을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